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자아개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곽준규 구만호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진로의식관련연구, 특히 진로의식성숙과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연구에서 주로 제외되었던 우리 나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개념과 내외통제성이 진로의식성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 간에는 신체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을 제외하고 학문적 자아개념 및 정의적 자아개념과 正的 相關이 있었으나 그 상관계수는 낮았다. 둘째, 내외통제성과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에서는 내적통제집단이 외적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의식성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 수준을 예언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자아개념과 내외통제성변인 중에서 기여도가 큰 순서는 내외통제성변인, 학문적 자아개념변인, 정의적 자아개념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선행연구들과 관련지어 논의한 후, 초등학생 진로지도에 주는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에 대해 언급하였다.

오늘날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사회 기능이 세분화되고 산업화됨에 따라 일과 직업세계가 매우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기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적성, 흥미, 인성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

이 원하는 삶의 목표와 진로를 선택하여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IMF구제금융체제 하에서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불안, 정리해고, 명예퇴직, 조기퇴직, 그리고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의 주역들인 초등학교생들이 불안한 사회 및 가정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진로의식을 정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이현림, 김영숙, 박혜경, 1998).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특성 및 능력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없이 부모의 소망과 가치 기준 판단에 따라 비합리적인 진로의식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신철, 1995).

더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진로지도나 진로교육에 대한 개념을 중·고등학생들에게만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이현림 등, 1998). 그러나 진로에 대한 발달적 견해에 의하면 진로발달은 인식, 탐색, 준비 및 전문화의 단계를 거친다(Ginzberg, 1951). 이러한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시기를 진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인식의 단계 및 탐색의 초기단계로 보고, 초등학교 시기부터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지도 실시함으로써 그 이후 단계의 진로에 대한 원만한 성숙과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장석민, 서혜경, 임재석, 김홍원, 하종덕, 1986).

최근 인성과 아동발달분야에서 밝혀진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 자신의 진로 및 일에 대해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이러한 관심이 6학년이 되면 50% 이상의 학생들이 잠정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권영조, 1990; 이정근, 1980). 이러한 점들로 보아, 초등학교생의 진로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진로의 선택은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이 결정되고, 만나는 사람과 사귀는 친구들이 달라지며, 그의 가치관과 태도까지 변화되기 때문이다(Tolbert, 1974).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 그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므로 진로선택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자신의 삶으로부터 느끼는 만족감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Goodstein, 1972; Morgan, 1972; Yankelovich, 1974).

진로선택 및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생애발달이론에 의하여 생애발달수준을 뜻하는 생애성숙 혹은 진로의식성숙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고(Super, 1953),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진로의식성숙검사(Crites, 1973)가 개발되었다.

생애발달이론에서는 진로에 대한 성숙이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과정으로 각 발달단계마다 수행되어야 할 문제 및 특성이 있고, 진로선택이나 의사결정에서의 개인의 발달정도는 개인의 내·외적 요인 즉 사회·심리적 제요인의 차이로 인해 개인마다 다르다고 본다(김현옥, 1989).

그런데, 진로발달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 진로의식성숙이며, 진로의식성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변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이기학·한종철, 1998).

진로의식성숙과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논의한 선행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자아개념(신철, 1997; Korman, 1966; Oppenheimer, 1966; Soares & Soares, 1966), 사건 및 행동의 원인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내적인 자신에게 귀인하

는지 아니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문제로 지각하는지를 나타내는 내외통제성 정도(강희운, 1994; 김원중, 1984; Gable, Thompson & Glanstein, 1976; Lokan, Boss & Patsula, 1982) 등에 따라 진로의식성숙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강희운,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의식관련연구, 특히 진로의식성숙과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연구에서 주로 제외되었던 우리 나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가능한 자아개념과 내외통제성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아개념과 내외통제성이 진로의식성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밝힘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초등학생 진로지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우리 나라 초등학생의 내외통제성과 진로의식성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우리 나라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내외통제성이 진로의식성숙의 예언 변인으로 기여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이론적 배경

1. 진로의식성숙

진로의식성숙은 생애발달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생애발달이론은 신체, 인지, 사회성처럼 일에 대한 태도, 지식, 기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성숙하여진다고 보

는 이론이다(김원중, 1984). 이 이론에서는 일에 대한 가치관, 직업선택, 의사결정방식, 역할수행, 직업적 정체감, 교육기회, 직업에의 적응,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현상과 그에 영향을 주거나 相關이 있는 변인을 연구 주제로 한다.

Ginzberg(1951)는 생애발달에 발달심리학적 접근방법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는 직업선택을 성장과 발달의 과정적 개념에서 파악하여 직업선택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결정과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선택의 과정은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의 주관적 요소와 현실세계와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며, 타협을 선택의 본질적 측면으로 보았다.

Ginzberg는 직업선택의 발달단계를 환상적 단계(6~10세), 시험적 단계(11~17세), 현실적 단계(18세 이후)로 구분하였다. 환상적 단계는 현실여건, 자신의 능력,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을 놀이활동을 통해 표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욕구와 행동을 직업선택과 동일시하는 시기이다.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시험적 단계는 자신의 능력, 흥미, 가치 등의 주관적 요인이 지배되며 외부적 요인을 의식하게 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현실적 단계는 현실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로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 기회,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타협을 계속하고 결정에 이르는 단계이다.

Ginzberg의 이론은 각 단계별로 문제의 발견과 지도에 도움을 주었고, 개인의 직업선택은 초기에는 능력, 흥미, 가치관 등이 좌우하지만 후반에는 이러한 것들이 외부적인 조건과의 타협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Super(1953, 1957)는 Ginzberg의 이론이 첫째, 나이가 많은 학생에 대한 자료가 없고, 둘째, 본

능, 본질, 발달 그리고 예언 가능한 검사들의 가치를 거의 무시했으며 셋째, '선택'을 단순한 선호성으로 정의했으며, 넷째, '선택'과 '적용'의 구별이 적절하지 않으며, 다섯째, 그의 연구가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출발했고, 적절하게 흥미, 능력, 가치, 기회 등의 타협의 의미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의 과정을 묘사 또는 연구하지 않았고, 여섯째, 직업 선택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비판하고, 보완하는 입장에서 당시의 진로선택 및 진로발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분석, 종합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발전된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는 개인차, 직업적 능력의 유형, 부모와의 동일시 및 모델의 역할, 적용의 계속성, 생애 발달단계, 발달의 지도 가능성, 진로 유형의 역동성, 직업적 만족 등을 다루고 있다. 그는 생애 발달과정은 본질적으로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인간은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Super는 직업발달단계를 다음과 같이 크게 5 단계로 나누었다.

성장기(출생~14세)는 주위인물들과 동일시를 통해 자아개념을 발달시켜 나가고, 욕구나 환상이 지배적이지만 차차 사회적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초등학생들은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 기간 중에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주요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이현림 등, 1998). 이 시기의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거나 사회참여와 현실검증이 증가함에 따라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된다.

탐색기(15~24세)는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직업기회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잠정적으로 선택해 보는 시기이다.

확립기(25~44세)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생활의 터전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

유지기(45~64세)는 직업세계에 정착하여 안정된 가운데 살아가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다.

쇠퇴기(65세 이후)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기능이 쇠퇴하여 집에 따라 직업세계에서 은퇴하게 되며, 새로운 역할이나 활동을 찾게 되는 단계이다.

Super는 각 단계의 독특한 행동 특징을 제시하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발달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Super의 이론은 직업선호와 생애를 자아실현과정으로 보았고, 진로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동적이고 포괄적이다.

Herr(1982)는 미국의 교육연구 전국협의회 1982년 연례보고회에서 생애발달에 관하여 수행된 선행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생애발달은 개인의 능력, 흥미와 욕구, 기대, 일에 대한 가치관, 주요 他者の 영향, 지역사회 크기, 자녀양육방식, 사회경제적 배경, 심리적 적응력, 모험심, 포부수준, 직업정보의 종류와 수준, 성, 인종, 교과내용 등의 다양한 심리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Super가 세운 가설의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진로의식성숙이란 Super(1955)에 의해 설정된 개념이다. Super는 진로의식성숙이란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로서 탐색기로부터 쇠퇴기까지의 발달단계 중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를 뜻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 개인의 진로의식성숙 수준은 그 개인이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이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층에 기대되는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의해 평가

된다(김원중, 1984).

Super와 Overstreet(1960)는 진로의식성숙의 구성요인을 다음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 ①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 : 진로문제에 대한 관심도 및 진로선택에 필요한 자료이용의 효율성
- ②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관한 정보수집 및 계획성 :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의 면밀함 및 진로계획의 치밀성과 진로계획의 참여도
- ③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일관성 :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분야 및 수준의 일관성
- ④ 자기 특성의 구체적 이해 : 흥미의 성숙과 유형화, 진로문제에서의 독자성, 진로계획에 대한 책임감 수용 및 일로부터의 보상에 관한 관심
- ⑤ 진로문제에 있어서의 지혜 : 능력과 흥미의 일치도

Crites(1971)는 진로의식성숙을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라고 하였고, Gribbons와 Lohnes(1964)는 진로의식성숙을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준비도라고 하였으며, Hoyt(1977)는 진로의식성숙이란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한 바탕에서 이를 잘 통합할 수 있는 준비도라고 하였다.

김충기(1983)는 개인의 직업적 소양-가치-지식-기술 등의 습득을 위하여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발달이라 하고, 직업발달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결과를 진로의식성숙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본 여러 가지 관점들은 모두 진로의식성숙을 발달적 개념으로 보면서, 이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정

도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2. 진로의식성숙과 자아개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1)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Super는 자아이론의 영향을 받아 그의 생애발달이론은 자아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는 생애발달은 자아개념을 구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의식성숙은 그의 자아개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Super(1953)가 그의 이론에서 자아개념과 생애발달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기본적인 명제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의 직업적 선호와 능력, 생활장면 및 자아개념은 시간의 경과와 경험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직업의 선택과 직업에의 적응은 계속적인 과정이 된다.

② 개인의 발달단계를 통한 성장은 능력과 흥미의 성장과정을 촉진시키거나 자아개념의 발달을 도와줌으로써 지도될 수 있다.

③ 직업발달과정은 본질적으로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즉, 직업발달과정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적성, 생리적 체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및 역할수행의 결과로 선배 및 동료들로부터 받는 승인에 대한 개인의 평가 등이 상호작용하여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타협의 과정이다.

④ 개인과 사회적 요인, 이른바 자아개념과 현실성간의 타협이란 역할수행의 하나이며, 이러한 역할은 상담, 면접 또는 학급, 클럽, 여가활동, 취업활동 등에서 수행된다.

이와 같이 Super는 인간은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생각하던 바

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Super의 생애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자아개념과 생애발달수준, 즉 진로의식성숙 수준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강종구, 1986; 김원중, 1984; 김현옥, 1989; 정순희, 1989; 김탁희, 1992; 신 철, 1997; Gati, Krausz, & Osipow, 1996; Holland, 1981; Korman, 1966; Lefebure, 1971; Oppenheimer, 1966; Soares & Soares, 1966).

그리고 이들 연구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진로선택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내외통제성과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Rotter(1966)는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여 개인이 갖는 강화에 대한 기대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내외통제는 이러한 강화에 대한 기대변인 중의 하나로서 Rotter(1966)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강화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력한 어떤 다른 힘의 통제하에 있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라거나, 행운, 우연, 운명에 의한 것이라고 지각할 때 이러한 신념을 외적통제신념이라고 부르며, 개인이 그러한 강화를 자신의 행동이나 비교적 고정적인 자신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지각할 때 이러한 신념을 내적통제신념이라고 부른다.”

Rotter가 내외통제신념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내외통제척도를 개발한 후 내외통제신념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내적통제집단과 외적

통제집단을 비교함으로써, 그 두 집단의 특징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Crandall과 Katkovsky(1965)는 외적통제를 하는 학생들에 비해 내적통제를 하는 학생들이 知的 자유놀이 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더욱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읽기, 산수 등의 과목에서 더 높은 성취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Pines와 Julian(1972), Wolk와 Ducette(1974)는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외적통제집단에 비하여 내적통제집단이 동일한 상황적 조건하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더 많은 것을 학습한다고 하였다.

내적통제자와 외적통제자는 직업에 대한 태도와 신념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외적통제자들은 일의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보다는 직업의 명예가치에 근거하여 직업을 선호하는 반면, 내적통제자들은 명예보다 능력요인에 근거하여 직업을 선호한다. 그러나 외적통제자들은 내적통제자들에 비해 높은 지위를 더 열망하면서도 그러한 지위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 획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Liberty, Burnstein & Moulton, 1966).

직업인들의 의식구조를 비교, 분석한 Centers(1948)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과 업적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낮은 지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여부는 운명과 행운에 달려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하였다.

내적통제자와 외적통제자의 성격 및 행동의 차이는 그들의 생애발달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진로의식성숙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캐나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Lokan, Boss, Patsula(1982)는 내적

통제자들이 외적통제자들에 비해 진로의식성숙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Gable 등(1976)의 연구도 위와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내외통제신념이 진로의식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김원중(1984)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내적통제집단의 진로의식성숙 수준이 외적통제집단의 진로의식성숙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sipow, Carney와 Barak(1976)은 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는 정도가 진로선택을 예언하는 중요 지표라고 주장하면서, Rotter의 내외통제적 신념이론을 진로의식성숙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김현옥, 1989).

정채기(1991)의 연구에서는 내적통제집단이 외적통제집단보다 진로결정의 유형에 있어 더 합리적이며 그 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에 대한 귀인을 내적으로 하는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이 더 잘 이루어져 있으며, 외적으로 귀인 할수록 진로에 대한 미결정의 특성이 높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다(정채기, 1991; Gati et al., 1996).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에 있는 P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32명, 여학생 32명 등 총 6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그 시기가 진로 선택과정에서 흥미, 자아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잠정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는Super의 견해(1953)에 기초를 두었다.

2. 연구 도구

1) 진로의식성숙검사

진로의식성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Crites(1973)가 10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거쳐 제작한 진로의식성숙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 CMI)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진로선택과정에 대한 피험자의 태도와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性向的 반응경향성(Dispositional Response Tendencies)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진로선택과정에의 관여정도, 진로선택문제에 대한 기본태도, 진로결정에 있어서의 독립성, 진로문제에 대한 결정 정도, 진로문제에 있어서의 타협 정도를 측정하는 총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진로의식성숙검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연령층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자기보고식(self-report)검사이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검사 실시 4주 후에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한 결과 $r=.68$ 로 나타났다(신철, 1995).

2) 자아개념검사

자아개념검사는 김정규(1992)의 '자아개념과 그 평가방법에 관한 고찰'과 '아동용 자아개념검사의 제작과 그 요인구조의 분석'에서 제시된 "나에 대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Shavelson과 Bolus(1982)의 자아개념의 구조에 관한 모형을 기초로 하였다.

본 검사의 형식은 Likert식 4단계 척도로 되어 있어 피검자는 각 진술문을 읽고 자기 자신과 관련되는 정도에 따라 ○표를 하도록 하였고, 채점시에는 '항상 그렇다'에 답하면 4점, '대체로 그렇다'에 답하면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답하면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답하면

표 1. 자아개념 검사 문항 분석

| 신뢰도 | | Cronbach 의 α | 재검사 신뢰도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 하위 영역 | | | | | |
| 학업적 | 공부전반 | .86 | .75 | 8 | 1, 9, 17, 25, 33, 41, 49, 57 |
| | 특정교과 | .79 | .78 | 8 | 2, 10, 18, 26, 34, 42, 50, 58 |
| 사회적 | 중요인물 | .76 | .77 | 8 | 3, 11, 19, 27, 35, 43, 51, 59 |
| | 또래친구 | .85 | .82 | 8 | 4, 12, 20, 28, 36, 44, 52, 60 |
| 정의적 | 정서·적용성 | .63 | .74 | 8 | 5, 13, 21, 29, 37, 45, 53, 61 |
| | 성격 | .72 | .76 | 8 | 6, 14, 22, 30, 38, 46, 54, 62 |
| 신체적 | 신체외모 | .85 | .76 | 8 | 7, 15, 23, 31, 39, 47, 55, 63 |
| | 신체능력 | .83 | .81 | 8 | 8, 16, 24, 32, 40, 48, 56, 64 |

* Cronbach의 α : N=446
재검사 신뢰도 : N=104

1점씩 계산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검사도구의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하위 요인별 내용과 신뢰도 및 문항번호는 다음의 표1과 같다.

3) 내외통제성검사

본 연구에서 피검사자들의 내외통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도구는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내외통제척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번역, 수정하여 제작한 정은주와 손진훈(1981)의 내외통제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그렇다'와 '아니다'의 양자택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40개의 강제선택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채점은 반응이 '아니다'(내적통제)이면 1점, '그렇다'(외적통제)이면 0점을 주어서 총점을 내외통제점수로 산출하였

다. 이 척도의 문항들은 知的이고 학업에 관련된 행동에 대한 신념과 미신에 대한 일반적인 지각, 부모와 친구에 관련된 행동-강화 간의 일관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 얻은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의 경향성을 나타낸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검사의 제작자들이 척도의 문항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 두 부분에 대한 상관을 내는 기우반분법(odd even method)에 의한 신뢰도를 구한 결과 $r=.50$ 이었고, 반분된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27, .33 이었다(정은주 등, 1981). 그리고 김원중(1984)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59$ 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 시내에 있는 P 초등학교 6학년 학생 73명을 무선표집 하여 이

루어졌다. 그러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모든 문항에 답하지 않은 9명의 자료는 제외시키고 총 64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선정한 P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만나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협조해 줄 것을 약속한 교사에게 진로의식성숙, 자아개념, 내외통제성을 검사할 검사지를 직접 전달하였고, 검사 실시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미리 설명하였다. 그리고 검사를 완료한 검사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 처리

모든 자료는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 Win 8.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진로의식성숙 점수는 각 문항 1점씩인데, 2번, 22번, 38번, 42번, 45번, 46번, 47번 문항은 반응이 '그렇다'(진로의식성숙)이면 1점, 그 외의 문항은 '아니다'(진로의식성숙)이면 1점을 주어 50점 만점으로 처리하였다.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아개념의 각 하위검사 점수와 진로의식성숙 점수의 상관 계수를 구하고 그 意義도를 검증하였다.

내외통제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외통제성 점수의 상위 30%를 내적 통제집단, 중간 40%를 중간집단, 하위 30%를 외적 통제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세 집단의 진

로의식성숙 점수를 비교하는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의 개별비교를 하였다. 이와 같이 집단을 분류한 것은 내외통제척도의 신뢰성을 고려해볼 때 중간 점수를 받은 피험자를 내적 통제 집단, 혹은 외적 통제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류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아개념과 내외통제성 변인이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 비교하기 위하여 자아개념, 내외통제성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진로의식성숙을 기준변인으로 하는 重多回歸分析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자아개념의 각 하위검사 점수와 진로의식성숙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구하고, 그 意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를 보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통계적으로 意義있게 상관이 있는 자아개념은 학문적 자아개념과 정의적 자아개념으로 나타났으며, 그 상관도는 각각 $r=.244$ 와, $r=.156$ 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그 상관관계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P<.05$). 그리고 자아개념의 나머지 하위변인인 신체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은 통계적으로 有意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2. 자아개념 각 하위점수와 진로의식성숙 점수와의 상관계수

| 자 아 개 념 | 학문적 자아개념 | 사회적 자아개념 | 정의적 자아개념 | 신체적 자아개념 |
|---------|----------|----------|----------|----------|
| 상 관 계 수 | 0.244* | 0.133 | 0.156* | -0.08 |

* $P<0.05$

2. 내외통제성과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내외통제점수에 따라 내적통제집단, 중간집단, 외적통제집단으로 분류된 각 집단들 간에 진로의식성숙 수준이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에 의해 F값을 구하고, Scheffé의 개별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에 의하면 분류된 집단의 진로의식성숙 점수간에는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Scheffé의 개별비교를 해본 결과 내적통제집단은 중간집단과 외적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의식성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와 같은 결과는 모든 일의 원인을 타인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 시키는 성격특성을 가진 내적 통제자들이 그렇지 않은 외적 통제자들에 비해 진

로의식성숙 수준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진로의식성숙 수준의 주된 예언변인

진로의식성숙 수준이 자아개념의 각 하위변인들과, 내외통제성 변인에 의하여 얼마나 설명되고 예언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重多回歸分析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를 보면 기준변인인 진로의식성숙 점수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전체 예언변인과 $r=0.536$ 의 重多相關을 보임으로서 전체변량의 28.7%가 설명되고 있다. 표4에서 보듯이 각각의 변인이 첨가됨에 따라 說明量이 약간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 증가된 說明量의 意義度를 검증한 결과 說明量이 큰 내외통제성, 학문적 자아개념, 정의적 자아개념 등 3개의 변인이외의 다른 변인은

표 3. 내적통제집단, 중간집단, 외적통제집단의 진로의식성숙점수의 차이

| 구 분 | 사 례 수 | 평 균 | 표 준 편 차 | F값 | Scheffé의 개별비교 | | |
|---------|-------|-------|---------|----------|---------------|----|----|
| | | | | | 내적 | 중간 | 외적 |
| 내적통제집단 | 19 | 32.42 | 3.58 | 176.575* | 1 | 2 | 3 |
| 중 간 집 단 | 25 | 30.60 | 4.53 | | 1 | 2 | 3 |
| 외적통제집단 | 20 | 25.80 | 5.11 | | 1 | 2 | 3 |

* $P<.01$

표 4. 중다회귀분석표

| 변 인 | 중다회귀상관계수(R) | R ² | R ² 증가분 | F |
|-----------|-------------|----------------|--------------------|----------|
| 내 외 통 제 성 | 0.471 | 0.222 | 0.222 | 17.667** |
| 학 문 적 자 아 | 0.519 | 0.270 | 0.048 | 11.253* |
| 정 의 적 자 아 | 0.529 | 0.280 | 0.010 | 9.918* |
| 사 회 적 자 아 | 0.535 | 0.286 | 0.006 | 5.372 |
| 신 체 적 자 아 | 0.536 | 0.287 | 0.001 | 4.672 |

* $P<.05$, ** $P<.01$

비록 그것이 첨가되더라도 그것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意義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 수준을 예언하는데 통계적으로 意義있게 기여하고 있는 자아개념 및 내외통제성 변인 중에서 기여도가 큰 순서는 내외통제성변인, 학문적 자아개념변인, 정의적 자아개념변인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의식성숙과 자아개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그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 간에는 신체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을 제외하고 학문적 자아개념 및 정의적 자아개념과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상관계수는 낮았다. 그런데 이 결과는 김원중(1984)과 김필련(1991)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자아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자아개념 하위변인 모두와 진로의식성숙 간에,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자아개념까지 포함한 모든 자아개념 하위변인과 진로의식성숙 간에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상관이 있었다는 김원중(198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 간에 통계적으로 意義있는 상관은 있지만, 역시 상관계수는 낮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Holland(1981), Korman(1966), Dillard(1976), 김탁희(1992), 신 철(1997) 등의 연구결

과와 일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Super(1957)는 생애발달이론에서 자아개념이 진로의식성숙의 기본적 요인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진로의식성숙은 자아개념에 의해 영향은 받으나, 그 비중은 별로 크지 않다고 하겠다.

둘째, 내외통제성과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를 보면, 내적통제집단이 외적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의식성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Gable, Thompson, Glanstein(1976)과, Lokan, Boss와 Patsula(1982)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 수준을 예언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자아개념과 내외통제성 변인들 중에서 기여도가 큰 순서는 내외통제성 변인, 학문적 자아개념변인, 정의적 자아개념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의식성숙의 예언변인으로 자아개념변인보다 내외통제성변인이 더 크게 기여한다는 김원중(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 나라 초등학생들의 진로의식성숙은 심리적 변인인 학문적 자아개념과 정의적 자아개념, 그리고 내외통제성변인과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진로의식성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더불어 모든 일의 원인을 타인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 시키는 성격특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진로발달단계로 보아 '진로인식단계'에 놓여 있는 초등학생들(김충기, 1996)의 진로의식성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흥미를 끌거나 관심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진로지도활동 이외에, 학생들의 자아개념, 내

외통제신념 등의 심리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진로의식성숙은 인간발달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학교현장에서의 進路指導도 교과활동시간은 물론, 특별활동시간, 그리고 상담활동 등을 통하여 全人教育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진로발달은 평생에 걸친 발달과정이므로 초등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의식관련연구에서 주로 제외되었던 우리 나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개념과 내외통제성이 진로의식성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밝혀 보았는데, 이러한 변인들 이외에도 학생들의 거주지역, 부모의 직업관, 부모의 교육수준, 지능, 학교성적, 포부수준(level of aspiration) 등 사회·심리적 변인들 대부분이 이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진로의식성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초등학생들의 진로의식성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회·심리적 변인들과 초등학생들의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수행되어, 우리 나라 초등학생들의 진로의식성숙 수준과 그 발달양상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종구(1986). 자아개념, 진로의식성숙 및 학업성취도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강희운(1994). 진로의식성숙도와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상관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권영조(1990).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진로인식성숙도와 사회·심리적 변인들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김원중(1984). 진로의식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정규(1992). 자아개념과 그 평가방법에 관한 고찰. 교육논총. 제18집.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충기(1983). 진로교육의 본질. 서울 : 평민사.
- 김충기(1996).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탁희(1992).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김필련(1991). 중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신 철(1995).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의식성숙과 사회·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건국대학교대학원 학술논문집, 42, 41-67.
- 신 철(1997).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인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기학, 한종철(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10(1), 167-187.
- 이정근(1980).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서울 : 중앙적성연구소.
- 이현림, 김영숙, 박혜경(1998). 초등학생의 진로

- 의식에 대한 분석. 한국대학상담학회지 : 대학상담연구, 9(1), 93-116.
- 장석민, 서혜경, 임재석, 김홍원, 하종덕(1986).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 TM 86-7.
- 정순희(1989).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에 따른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정은주, 손진훈(1981). 학생용 내외통제척도 제작연구. 연구노트(Research Notes), 10(2). 서울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정채기(1991).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Centers, R.(1948). Attitude and belief in relation to Occupational Stratifica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159-185.
- Crandall, V. C, Katkovsky, W., & Crandall, V. J.(1965). Children's beliefs in their own control of reinforcement in intellectual-academic achievement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36, 91-109.
- Crites, J. O.(1971). The maturity of vocational Attitudes in Adolescence.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Inquiry Series, Monograph No. 2*. Washington D. C. :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 Crites, J. O.(1973).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lif. : CTB/McGraw-Hill.
- Dillard, J. M.(1976).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Self-Concept of Suburban and Urban Middle-and Urban Lower-Class Preadolescent Black Ma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311-320.
- Gable, R. K., Thompson, D. L., & Glanstein, P. J.(1976). Perceptions of personal control and conformity of vocational choice as Correlates of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 259-267.
- Gati, I., Krausz, M., & Osipow, S. H.(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Ginzberg, E.(1951). *Occupational choice*.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Goodstein, L.(1972). "A study of work orientations of Welfare Recipients" in *Work in America*. Cambridge, MA : MIT Press.
- Gribbons, W. D., & Lohnes, P. R.(1964).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Readiness for Vocational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 Herr, E. L.(1982). *Career development and Vocational Guidance*. in *Education and Work*.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lland, M.(1981). Relationships between vocational development and Self-concept in sixth Grad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228-236.
- Hoyt, K. B.(1977). *The school Counselor and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Korman, A.(1966). Self-esteem variable in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0, 479-486.
- Lefebure, A.(197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level of aspiration with negro and white children, *Ann Arbor. Michigan : University Microfilms.*
- Liberty, P. C., Burnstein, E., & Moulton, P. W.(1966). Concen with mastery and occupation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34, 105-107.
- Lokan, J. J., Boss, M. W., & Patsula, P. J.(1982). A Study of vocational maturity during Adolescence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 331-342.
- Morgan, J.(1972). "Survey, Research center Findings" in work in America. Cambridge, MA : MIT Press.
- Nowick, S., & Strickland, B. R.(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1), 148-154.
- Oppenheimer, E.(1966). The relation between certain self constructs and occupational pre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3, 191-197.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1976). A scale of educational vocational undecidedness :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 Pines, H. A., & Julian, J. W.(1972). Effects of task and social demands on locus of control differences in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40, 407-416.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 80.
- Shavelson, R. J., & Bolus, R.(1982). Self-concept :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3-17.
- Soares, A., & Soares, L.(1966). Self description and adjustment correlates of occupational choic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0, 27-31.
- Super, D. E.(1951). The criteria of vocational success. *Occupations*, 30, 5-8.
- Super, D. E.(1953). A th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4), 189-191
- Super, D. E.(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 Haper & Row.
- Super, D. E., & Overstreet, P. L.(1960). *The vocational maturity of ninth grade boys.* New York : Teachers College Bureau of Publications.
- Tolbert, E. L.(1974).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Wolk, S., & Ducette, J.(1974). Intentional performance and incidental learning as a function of personality and task dimen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91-101.
Yankelovich, D.(1974). The meaning of work,
in The worker and the Job. Edited by

Jerome M, Rosow.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Career Maturity of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Self-Concept and the Locus of Control

Jun-Kyu Kwak Man-Ho Koo

Dept.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reer maturity of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relation to their self-concept,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other related psychological variables. This kind of study has rarely been carried out by the researchers so that it has been very difficult to assi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achieve the career awareness relevant to their maturity level.

The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career maturity and self-concept seemed to be related when these two variables were analyzed. It showed that academic and affective self-concep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Second, when the locus of control was compared with the career maturity,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group showed higher level of career maturity than the external locus of control group. Third, it was found that the order of variables that seemed to be contributing for predic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vel of career maturity were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academic self-concept, and affective self-concept in ascending order.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mplication of career guida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widely discussed with relation to the previous researches and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career guidance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discussed as well. The research that should follow in the future were also suggested.